

부산시 동서교육 격차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인식 조사

박창언 · 박응희[†] · 조영석
(부산대학교 · [†]부산인적자원개발원)

A Investigate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n the Education Gap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hang-Un PARK · Eung-Hee PARK[†] · Young-Su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 [†]Bus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n the education gap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the schooling, non-schooling. To accomplish this research, we practice the questionnaires about the education development in Busan to 234 parents who reside i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 in Busan. The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broad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rea about parents' attitude towards children. Second, the results of schooling satisfaction are higher in eastern Busan area. Third, the parents of eastern part also show their satisfaction of schooling support. The results indicate that nation and local government must develop the short and long range plan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Key words : Education gap, Parents,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지역별 격차는 부산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도시 내에서 지역별 교육격차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의 8학군과 성남의 분당구, 대구의 수성구 등의 지역은 교육

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동구와 대덕구, 중구(태평동 일부 제외)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교육청과 서구, 유성구, 중구(태평동 일부 포함)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있으며, 교육낙후 지역은 동부교육청 관할 구역인 동구 지역이 해당되고 있다. 교육의 격차는

[†] Corresponding author : 051-558-8820, ehp8123@bhrdi.or.kr

* 이 연구는 부산인적개발원 "부산광역시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에서 학부모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특성 이외의 사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요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 사상적 기반에 기초한 사회적 노력에 해당된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동부산과 서부산으로 구분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동부산 지역은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구, 남구, 기장군이 해당되며, 서부산 지역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의 7개 지역이 해당된다. 부산교육에서 동부산 지역에 비해 서부산 지역은 교육의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어,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처방이 요구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부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체제 구축을 통해 부산권내 지역 간 교육부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의 발생에서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적 환경이 낙후된 지역과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 및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교육시설 관리는 부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 노력은 예산과 시설에 대한 관리권의 한계, 그리고 정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치중함으로써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들 협력체제에서 부산광역시의 역할은 시설과 재정적 투자의 필요성에서 보다 중

요하게 대두된다.

교육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역별로 지자체와 교육계의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임선희, 김경희, 2006),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하봉운, 2005),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하봉운, 2004)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각 지역별 교육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보면, 학교의 재배치, 교육지원의 확대, 구성원의 인식제고, 교육재정 지원 조례의 제정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교육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 지역의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시·도의 입장에서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형적 체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홍지영, 2010)에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격차 실태 파악 지표의 개발, 교육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의 주기적 점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실태의 지표가 유사하고, 교육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요인들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여타의 교육관련 주체의 실태 분석에 따른 연구가 더 진척되어야 보다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방

안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부산광역시의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 격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대상이 초등학교 이면서 학부모가 된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동이 교육격차에 대한 실질적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친권자로서 학부모가 그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소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서부산 지역의 초등학교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각각 대표학교 2개 학교를 집락표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별로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 150명, 서부산 지역 학부모 150명 총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직업, 평균소득, 맞벌이 여부, 주거형태, 자녀성별, 자녀성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2011년 6월 현재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교육격차와 관련된 국내의 논문·저서·이론·세미나 자료집 및 보고서 등의 관련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부산 지역의 교육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난 후, 학부모이면서 재직중인 현장 교사의 면담을 바탕으로 침착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 사교육 실시에 대

<표 1> 설문대상자의 특성

최종학력	동	초졸	중졸	고졸	2년 대졸	4년 대졸	석사졸	박사졸			
서		3(2.5%) 1(.9%)	8(6.7%) 4(3.5%)	35(29.2%) 42(36.8%)	6(5.0%) 20(17.5%)	57(47.5%) 45(39.5%)	7(5.8%) 2(1.8%)	4(3.3%) 0(.0%)			
가구주 직업	동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업직	생산직	공무원	전업주부	무직	기타
서		44(37.6%) 25(21.9%)	3(2.6%) 4(3.5%)	20(17.1%) 24(21.1%)	11(9.4%) 22(19.3%)	0(.0%) 1(.9%)	7(6.0%) 4(3.5%)	8(6.8%) 9(7.9%)	9(7.7%) 11(9.6%)	0(.0%) 1(.9%)	15(12.8%) 13(11.4%)
가구원 평균소득	동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서		10(8.5%) 5(4.6%)	24(20.5%) 15(13.8%)	16(13.7%) 20(18.3%)	6(5.1%) 22(20.2%)	12(10.3%) 24(22.0%)	49(41.9%) 23(21.1%)				
맞벌이 여부	동	그렇다				아니다					
서		53(44.2%) 45(39.5%)				67(55.8%) 69(60.5%)					
주거형태	동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	기타					
서		65(55.1%) 61(53.5%)	37(31.4%) 29(25.4%)	12(10.2%) 14(12.3%)	0(.0%) 3(2.6%)	4(3.4%) 7(6.1%)					
자녀성별	동	남				여					
서		60(50.0%) 60(50.0%)				52(45.6%) 62(54.4%)					
자녀성적	동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서		49(41.5%) 25(21.9%)	36(30.5%) 46(40.4%)	23(19.5%) 26(22.8%)	6(5.1%) 11(9.6%)	4(3.4%) 6(5.3%)					

한 내용,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운영 및 행정, 지역의 교육발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사전검토는 해당 교육격차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현장 교사인 10여명의 면담과 예비 설문 실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수정을 위한 의견을 받아들여 문항별로 재수정·보완하였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하위문항영역	문항 수	총문항수
자녀를 위한 행위	· 자녀교육상담 · 면학분위기 · 직접적인 교육 · 진로 및 입시지도 · 자녀에게 격려하는 말 · 자녀의 기분 맞추기	12	57
사교육	· 국어/ 영어/ 수학 · 사회/과학/ 예능 · 기타	21	
정규 교육 과정	· 기초능력과 기본생활습관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평가의 공정성 · 수학적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과정 개설 · 학교생활 적응활동 ·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지도 · 학교폭력 예방 노력	8	
학교의 운영 및 행정	· 학교운영위원회 사항의 전달 · 학교행사의 참여정도 · 학교시설과 환경의 충분성 · 도서관이나 정독실의 만족도 · 질병의 예방노력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 학교급식의 만족도	10	
지역 교육 발전	· 부산광역시와 구(군)의 노력 · 창의적 체험활동 협력의 정도 · 학력신장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 지역의 전반적 교육환경 · 교육을 위해 타지역 이사계획	6	

3. 조사절차

완성된 설문지는 2011년 6월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회수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이었으며, 응답 대상자 300명 중

조사에 응답한 대상은 234명(동부산 120명, 서부산 114명)으로 78%가 응답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문항의 영역에 따라 문항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t-test와 교차분석을 통하여 동·서 지역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PASW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자녀를 위한 행위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녀를 위한 행위의 차이에 자녀를 위한 행위 12개 문항 중 자녀를 위한 행위 10, 11번 문항에서 동·서 지역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자녀를 위한 행위 10번 문항인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의 평균 점수는 4.3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의 평균점수 4.1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323, p<.05$). 자녀를 위한 행위 11번 문항인 ‘자녀의 기분 맞추주기 위하여 노력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의 평균 점수는 4.14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의 평균점수 3.9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088, p<.05$). 반면 진로상담이나 공부분위기 조성, 입시정보 수집, 직접적 교육이나 공부방법 충고, 타 학생과의 비교, 체험학습의 참여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자녀에 대한 직접적 교육이나 관리 행위보다는 칭찬이나 기분 전환을 위한 격려하는 내용 등이 교육에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행위 점수

	동(N=120)		서(N=114)		t	p
	M	SD	M	SD		
진로상담위한 학교방문	2.72	.999	2.60	1.037	.946	.345
일상생활 고충상담	2.94	.998	2.76	.979	1.406	.161
집안 공부분위기 조성	3.89	.990	3.69	.936	1.583	.115
직접적인 교육지도	3.50	1.185	3.29	1.091	1.360	.175
입시정보 수집	2.98	1.170	3.11	1.072	-.891	.374
공부방법의 충고	3.83	.958	3.82	.889	.016	.987
진로에 대한 논의	3.66	1.033	3.87	.931	-1.619	.107
자녀의 성적관리	3.91	.926	3.76	.947	1.200	.231
다른학생과의 비교	2.96	1.155	2.78	1.024	1.253	.212
자녀에 대한 격려	4.36	.838	4.11	.817	2.323	.021
자녀의 기분맞추기	4.14	.876	3.90	.876	2.088	.038
체험학습 참여시킴	3.72	1.077	3.45	1.069	1.904	.058

2. 사교육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자녀의 과외 종류의 차이 검증에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자녀의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예·체능과에서는 과외 종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학과와 영어과, 기타에서는 과외 종류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 수학과

수학과에서 동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수학과 과외종류에는 학원수강이 34명으로 37.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안함(26명, 28.3%), 학습지(12명, 13.0%) 순으로 나타났다. 서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수학과 과외종류에는 학원수강이 32명으로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습지(14명, 17.5%), 그룹과외(12명, 15.0%) 순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수학과 과외종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chi^2=14.744$, $p<.05$).

나. 영어과

동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영어과 과외종류에는 안함이 36명으로 42.9%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학습지(17명, 20.2%), 학원수강(16명, 19.0%) 순으로 나타났다. 서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영어과 과외종류에는 학원수강이 17명으로 22.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습지(16명, 20.8%), 안함(15명, 19.5%) 순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영어과 과외종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chi^2=15.232$, $p<.05$).

<표 4>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수학과 과외종류

	지역		전체	χ^2	p	
	동	서				
수 학 과 외 종 류	개인과외	6 (6.5%)	6 (7.5%)	12 (7.0%)	14.744	.022
	그룹과외	8 (8.7%)	12 (15.0%)	20 (11.6%)		
	학원수강	34 (37.0%)	32 (40.0%)	66 (38.4%)		
	학습지	12 (13.0%)	14 (17.5%)	26 (15.1%)		
	통신과외, 인터넷과외	5 (5.4%)	1 (1.3%)	6 (3.5%)		
	기타	1 (1.1%)	6 (7.5%)	7 (4.1%)		
	안함	26 (28.3%)	9 (11.3%)	35 (20.3%)		
전체	92 (100.0%)	80 (100.0%)	172 (100.0%)			

<표 5>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영어과 과외종류

	지역		전체	χ^2	p	
	동	서				
영 어 과 외 종 류	개인과외	5 (6.0%)	5 (6.5%)	10 (6.2%)	15.232	.019
	그룹과외	6 (7.1%)	14 (18.2%)	20 (12.4%)		
	학원수강	16 (19.0%)	17 (22.1%)	33 (20.5%)		
	학습지	17 (20.2%)	16 (20.8%)	33 (20.5%)		
	통신과외, 인터넷과외	2 (2.4%)	2 (2.6%)	4 (2.5%)		
	기타	2 (2.4%)	8 (10.4%)	10 (6.2%)		
	안함	36 (42.9%)	15 (19.5%)	51 (31.7%)		
전체	84 (100.0%)	77 (100.0%)	161 (100.0%)			

다. 기타과

동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기타과 과외종류에는 안함이 24명으로 64.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룹과외(4명, 10.8%), 개인과외와 학습지(3명, 8.1%) 순으로 나타났다. 서쪽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기타과 과외종류에는 학습지가 13명으로 3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안함(10명, 26.3%), 기타(6명, 15.8%) 순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기타과 과외종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chi^2=19.805, p<.01$).

<표 6>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기타과 과외종류

		지역		전체	χ^2	p
		동	서			
기 타 과 과 외 종 류	개인과외	3 (8.1%)	0 (.0%)	3 (4.0%)	19.805	.003
	그룹과외	4 (10.8%)	4 (10.5%)	8 (10.7%)		
	학원수강	1 (2.7%)	4 (10.5%)	5 (6.7%)		
	학습지	3 (8.1%)	13 (34.2%)	16 (21.3%)		
	통신과외, 인터넷과외	0 (.0%)	1 (2.6%)	1 (1.3%)		
	기타	2 (5.4%)	6 (15.8%)	8 (10.7%)		
	안함	24 (64.9%)	10 (26.3%)	34 (45.3%)		
전체	37 (100.0%)	38 (100.0%)	75 (100.0%)			

라. 자녀의 과외시간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교과별 과외시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교과영역 7개 영역 중 과학과 영역에서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교과별 과외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서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평균 과외시간은 3.55시간으로 동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평균 과외시간 1.55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t=-2.806, p<.01$).

마. 자녀의 과외비용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교과별 과외비용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

증을 실시하였다. 교과영역 7개 영역 중 수학과 영역에서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교과별 과외비용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동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평균 과외비용은 20.78만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평균 과외비용 13.72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t=3.103, p<.01$).

<표 7>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교과별 과외시간

	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t	p
국어과 시간	동	32	2.61	5.214	-.290	.772
	서	46	2.89	3.261		
수학과 시간	동	71	4.25	2.585	-1.378	.170
	서	72	4.96	3.461		
영어과 시간	동	52	3.76	6.217	-.338	.736
	서	62	4.06	3.082		
사회과 시간	동	17	1.50	1.335	-1.986	.054
	서	27	3.50	4.000		
과학과 시간	동	21	1.55	1.254	-2.806	.008
	서	32	3.55	3.721		
예체능과 시간	동	43	3.42	2.725	-.925	.358
	서	31	4.10	3.581		
기타과 시간	동	11	2.89	3.573	-.389	.700
	서	26	3.90	8.308		

<표 8>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과외비용

	지역	N	평균	표준 편차	t	p
국어과 비용	동	32	5.46	3.213	.807	.422
	서	52	4.81	3.789		
수학과 비용	동	71	20.78	17.683	3.103	.003
	서	81	13.72	7.949		
영어과 비용	동	51	11.80	13.835	1.356	.178
	서	70	9.19	6.987		
사회과 비용	동	16	3.53	2.344	.365	.717
	서	32	3.32	1.740		
과학과 비용	동	21	5.15	4.187	.882	.382
	서	36	4.23	3.629		
예체능과 비용	동	41	11.98	9.339	.915	.363
	서	37	10.15	8.178		
기타과 비용	동	10	6.97	4.196	1.542	.151
	서	27	4.81	2.274		

3. 정규 교육과정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점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정규교육 만족도 8개 문항 모두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1번 문항인 '학교는 기초 능력배양(읽기, 쓰기, 셈하기, 컴퓨터 활용 등)과 기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4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8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403,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2번 문항인 '학교는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1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7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719,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3번 문항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수행평가 포함)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40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9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534,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4번 문항인 '학교에서 수학교과 실력 신장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0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4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972,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5번 문항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교육이 듣기·말하기에 도움이 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83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1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308,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6번 문항인 '학교에서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 위문활동, 진

로활동, 상담활동, 학예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0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8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3.608,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7번 문항인 '학교는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지도를 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9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401, p<.001$). 정규교육 과정 만족도 8번 문항인 '학교는 교내·외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646, p<.001$).

<표 9>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정규 교육 만족도

	동(N=120)		서(N=114)		t	p
	M	SD	M	SD		
기초능력과 기본생활 습관 함양	4.24	.789	3.80	.730	4.403	.00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함양	4.21	.829	3.71	.770	4.719	.000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정성	4.40	.803	3.93	.775	4.534	.000
수학능력 함양위한 특별프로그램	4.06	.968	3.46	.831	4.972	.000
영어에서 듣기·말하기 교육의 유용성	3.83	.933	3.16	.972	5.308	.000
학교 집단활동 참여를 통한 적응	4.20	.894	3.80	.776	3.608	.000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지도	3.96	.887	3.35	.797	5.401	.000
교내·외 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4.26	.804	3.65	.841	5.646	.000

4. 학교의 운영 및 행정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점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교운영 및 행정 만족도 10개 문항 중 5번 문항(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만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1번 문항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학부모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89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6.547, p<.0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2번 문항인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나 교육 활동(명예 교사, 자원 봉사자 등)에 참여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9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3.395, p<.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3번 문항인 '학교의 시설(컴퓨터, 책상·의자, 체육 시설 등)은 학습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1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252, p<.0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4번 문항인 '학교의 환경(교실 및 학교 환경, 조명, 냉·난방)은 학습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30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3.229, p<.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6번 문항인 '학교의 정독실에 대해 만족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01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6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941, p<.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7번 문항인 '학교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9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8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3.769, p<.0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8번 문항인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성인의 능력 개발, 취미 활동, 동호인 모임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33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11.718, p<.0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9번 문항인 '학교의 학생 복지시설(사물함, 탈의실, 보건실, 화장실, 급식시설 등)에 만족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4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6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575, p<.001$).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10번 문항인 '자녀의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0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612, p<.001$).

<표 10>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운영 및 행정 만족도

	동(N=120)		서(N=114)		t	p
	M	SD	M	SD		
학교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가정 전달	3.89	1.011	3.06	.901	6.547	.000
학부모의 학교 행사에 적극적 참여	3.96	1.108	3.50	.902	3.395	.001
학교의 시설 만족도	4.16	.861	3.65	.917	4.252	.000
학교의 환경 만족도	4.30	.854	3.95	.747	3.229	.001
학교도서관의 만족도	4.24	.963	4.15	.788	.769	.443
학교 정독실의 만족도	4.01	1.026	3.62	.920	2.941	.004
학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노력	4.29	.775	3.89	.817	3.769	.000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	4.33	.771	3.04	.892	11.718	.000
학교의 복지시설 만족도	4.24	.853	3.61	.868	5.575	.000
학교급식의 만족도	4.20	.907	3.50	.968	5.612	.000

5. 지역교육발전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점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6개 문항 중 4번 문항(학력신장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동·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1번 문항인 '부산광

역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361, p<.001$).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2번 문항인 ‘구(군)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64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695, p<.001$). 지역 교육발전 만족도 3번 문항인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체험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잘 협력한다고 생각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66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5.003, p<.001$).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5번 문항인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교육환경에 만족한다.’의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92점으로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3.0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6.467, p<.001$). 지역 교육발전 만족도 6번 문항인 ‘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향후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의 서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10점으로 동쪽 지역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점수 2.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095, p<.05$).

<표 11> 초등학교 학부모의 지역교육발전 만족도

	동(N=120)		서(N=114)		t	p
	M	SD	M	SD		
부산광역시의 교육발전 노력	3.69	.884	3.08	.814	5.361	.000
구(군)의 교육발전 노력	3.64	.911	3.00	.782	5.695	.000
창체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3.66	.927	3.07	.828	5.003	.000
학력신장 별도 프로그램	3.92	.940	3.89	.782	.291	.771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3.92	1.062	3.09	.872	6.467	.000
자녀교육위한 이사계획	2.74	1.368	3.10	1.224	-2.095	.037

IV. 결론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설문지는 크게 보면,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사항, 그리고 가족적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의 운영과 행정이 해당되며,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사항으로는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 자녀를 위한 행위와 사교육의 실시 여부 등은 가족적 요인에 해당된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은 대부분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격차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 가족 요인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부터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과 교과의 활동 모두에서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서부산 지역 학부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활동과 관련된 기초능력의 배양과 기본생활능력의 습관의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함양을 위한 학교의 노력, 학생의 공정한 평가, 학교의 영어교육의 도움 등이 있으며, 교과의 활동으로는 학교의 집단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도하고 있으며,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지도, 학교 내·외의 폭력 예방 등에서 학교가 잘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안정성과 믿음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서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학력격차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 구·군이나 학교에서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한 목적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에서 학력격차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와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의 공개를 통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기관의 균형배치 및 지역간 교원의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학부모에게 잘 전달되고 있고, 학교행사나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시설과 환경이 만족스럽고, 학교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의 노력,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학생의 복지시설과 학교급식 등에서 만족하고 있다.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참여의 활성화는 학교의 전반적 시설이나 여건 등에 대한 관찰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서부산 지역 학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문화공간을 비롯한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환경이 동부산 지역에 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부터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환경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 교육환경의 지표로서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동부산 지역이 더욱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홍지영, 2010: 12-13). 교육여건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느냐의 여부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복지의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세부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박창언, 2011).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지원활동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부산광역시의 교육발전에 대한 노력, 구(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지역의 전반적 교육환경 등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향후 타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제반 지원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부산 지역의 교육시설이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와 구(군)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서부산권에 집중된 정책추진의 미흡과 서부산에 특화된 일부사업의 폐지 등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크게 작용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부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지원,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활성화 등의 과제가 서부산 지역에 집중하고자 하였지만, 부산 전체로 일반화되었고, 지원금액은 서부산에 비해 동부산 지역이 더욱 많이 책정되기도 하였다(홍지영, 2010: 22). 또한 시 차원에서 서부산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낙동강 주변 생태학교 벨트조성, 서부산권 제2학생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의 파악과 사업 내용의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사업계획에 충실한 성과 지표의 개발과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적 요인에서는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가 서부산 지역에 비해 자녀의 격려의 말이나 자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노력 등에서 후한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로상담이나 직접적 공부 및 학습방법 등의 충고 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족 내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아동에 대한 격려나 학부모의 지원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문제는 교육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족적 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교육에 대한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학부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 맥락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장·단기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고민하여야 할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사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가 수학 분야에 초점을 두는 부분과 과외 비용에서도 수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의 시간에서는 과학분야에서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가 보다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영어에 비해 수학과 과학이라는 교과가 아동의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수학이라고 한다. 동부산 지역의 학부모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지원과 달리 가족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이들 사항에서 특정한 항목에서 동·서 지역 학부모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오욱환(오욱환, 2008)은 교육격차의 원인을 학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 확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다. Anyon(2005)나 Berliner(2006) 등의 외국 학자의 경우는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사항을 학교교육만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가정교육에 대한 조치, 실질적으로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교교육, 학교교육의 지원, 가족 요인 등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수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의 지원 등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지만, 가족 요인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질적으로 가족 요인에서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격차 부분은 해당 지역과 학부모의 경제력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되므로 비교적 장기적인 과제가 되며, 가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이나 학교교육의 교육은 비교적 단기적인 과제의 성격을 띠 수도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과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도 단기적인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해결되어야 하기에 단기적인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지역 교육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교육에 대한 실증적 진단과 검토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누적되어야만 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의 운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취약할 경우,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전면적 주5일 수업 운영의 활성화도 저해된다. 따라서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타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의 지원 사업이 요구된다. 자녀와 함께하여 교육역량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지역내 거점학교를 통한 교육기관간의 협력 체제의 구축도 요구된다. 찾아가는 학부모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달효(2007).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수산해양교육연구* 19(3), 390~402.
김영철(200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응희 · 박창언 · 조영석(2010). 부산광역시 동서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부산: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박창언(2011).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자료집, 3~30.
- 오욱환(2008).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직시: 학교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로, *교육사회학연구* 18(3), 111~133.
- 이기범 · 김하수 · 정유성 · 김호기 · 하연섭 · 오성배(20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임선희 · 김경희(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6(3), 189~210.
- 정성수 · 오세희 · 김기민(2010). 경남의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 및 해소방안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52~66.
- 하봉운(2004).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경기논단* 6(4), 61~90.
- 하봉운(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3(3), 167~193.
- 홍지영(2010). 부산시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와 대책-동·서간 교육격차를 중심으로-, 부산: 부산정책연구자료.
- Anynon, J.(2005). *Radical possibilities: Public policy, urban education, and a new social movement*, New York: Routledge.
- Berlinger, D.C.(2006). Our impoverished view of educational research, *Teachers College Record*, 108(6), 949~995.
-
- 논문접수일 : 2012년 09월 0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9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17일